

2017년도 해양경찰 순경 한국사

(해설: 백준기)

1. 다음 선사 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 시대에는 뿔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찌개, 주먹도끼 등과 같이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밀개, 찌르개 등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② 신석기인들 부터는 도구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하였다.
- ③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앞서 덧무늬토기, 이른 민무늬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 ④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발달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의 비중은 낮아지고 돼지, 소, 말 등의 가축을 사육하였다.

정답: ②

* 여러 선사시대들에 대하여

구석기 시대: 뿔석기를 사용하였으며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전기에는 찌개, 주먹도끼 등과 같은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으나,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 낸 돌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크기는 작아지고 점차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게 되었다. 후기에는 썰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하였다.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 자리, 담자리 및 불뿔 자리가 남아 있다. 또한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생활하였는데 이는 언어를 사용한 증거이다.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뽕족)가 널리 사용되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보다 앞선 토기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팽이 등의 간석기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2. 다음 중 (가)의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도병마사는 성종 때 처음 설치되어 국방 문제를 담당하였다. ... (중략) ... 원 간섭기에 (가) (으)로 개칭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① 법제의 세척을 만드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다.

② 도당으로 불렸으며 조선 건국 초에 폐지되었다.

③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며, 그 밑에 6부를 두었다.

④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를 동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②

* 도평의사사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재추 회의). 그러나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에는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 문제까지도 관장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불리게 되었다. 원의 간섭기 이후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며(1279), 그 구성원 수가 증가하여 귀족연합정치의 성격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도 존재하였으나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방원(태종)은 정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하였으며, 태종 원년(1401)에는 의정부에 합속되었던 문하부를 없애고 그 재신들은 의정부에 합하여 점차 의정부·6조 중심의 정치체제를 갖추어 갔다(낭

사는 사간원으로 독립되었다).

- ①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인 또 하나의 기구는 식목도감(式目都監)으로 법제의 세칙을 만드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다.
- ③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이.병.호.형.예.공)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 ④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은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3품 이하)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臺諫)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3. 고려 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지-18]

- ㉠ 토지만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지배가 허용된 식읍이 왕실이나 공신들에게 수여되었다.
-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외역전과 내장전을, 관청의 경비를 위해 공해전을 두었다.
- ㉢ 농민은 민전을 경작하여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고, 역과 공부를 부담하였다.
- ㉣ 권세가들은 대규모 개간에 참여하였고 사패를 받아 토지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 고려 시대의 경제

- 고려에는 고대의 산물인 인정(人丁)을 기초로 한 호(戶)를 단위로 분급되는 토지인 식읍이 왕실이나 공신들에게 수여되었고(원칙적으로 당대에 한함), 건국 초기에는 귀순 성주들에게 녹읍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수조지의 사급(賜田)으로 대체되었다(940년 역분전의 출현).
- 고려의 전제와 체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나 12세기 초엽에 이르러 동요의 양

상을 보이더니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1170년)부터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파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형성된 사적인 대토지지배의 특수한 형태를 농장(農莊)이라 부른다. 당시의 권세가들과 심지어는 사원까지도 개간, 매매, 사패(賜牌: 국가가 인정한 토지.노비의 소유에 대한 증서로, 보통 황무지에 대한 개간.소유권 부여 명목으로 발행) 등의 합법적 방법뿐 아니라 탈점, 고리대 의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민전을 비롯한 각종 토지를 점령하여 갔으며, 이렇게 하여 집적된 대규모의 땅을 농장으로 경영하였다

-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또,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다. 농민의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대부분 국가의 수조권이 설정되어 수확의 1/10을 세금으로 냈고, 역(요역, 군역)과 공부(공납)를 부담하였다.

- 개인이 아닌 기관에 분급되는 토지가 있는데,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장전을 두었고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

㉡ 외역전은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직역과 함께 세습되었다.

4. 다음 설명은 고조선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신부 집에서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성장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돌려 보내고, 친정에서는 예물을 요구한다. 신랑 집은 예물을 치르고 신부를 다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온다.

㉡ 풍속을 보면 산천(山川)을 중요시하여 산(山)과 내(川)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꺼리는 것이 많아서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곧 다시 새집을 지어 산다. 마포가 산출되며,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든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하였다.

㉕ 이 나라 족장들 중 세력이 큰 자는 스스로 신지라 부르고 그 다음 세력을 읍차라 한다.……5월이 되어 씨를 다 뿌리고 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시고 놀아 밤낮을 쉬지 않는다.……10월에 농사일이 끝나면 또 한번 이렇게 논다.

① ㉑ - 서옥제라는 풍속과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실시하였다.

② ㉒ -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제정분리 사회였으며, 천군이 소도라는 영역을 지배하였다.

③ ㉓ - 농사일이 모두 끝난 12월에 영고를 행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가무를 즐겼다.

④ ㉔ - 읍군과 삼로가 각각 자신의 부족을 다스렸다.

정답: ③

* 여러 초기국가들에 대하여

㉑ 옥저: 알려진 제천행사가 없었으며,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㉒ 동예: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폐쇄적인 씨족 사회의 전통이 매우 강하여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

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㉓ 부여: 가장 북쪽인 만주 지방에 자리하였던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추수가 끝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곁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㉔ 삼한: 다른 국가들이 제정일치(군장과 제사장이 일치) 국가 있는데 비해 삼한은 제정분리의 국가였다. 이는 신성 구역인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① 고구려의 혼인 풍습으로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②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④ 초기국가들 중 고구려만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데 성공하였다.

5. 다음 보기 ㉑~㉔는 고려 시대 대외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㉑ 유송단이 “성곽을 버리면 종사를 버리고, 바다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은 아닙니다. 라

고 반대하였다.

㉔ 서희가 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 라고 주장하였다.

㉕ 윤관이 “신이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 ① ㉑-㉒-㉕ ② ㉒-㉑-㉕
③ ㉒-㉕-㉑ ④ ㉕-㉒-㉑

정답: ③

* 고려와 북방민족과의 항쟁의 연대기

-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이후에도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구실로 두 차례 더 침략해 왔으나, 고려는 이를 잘 막아 냈다. 특히, 강감찬은 거란이 세 번째 침략해 왔을 때, 살아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귀주 대첩, 1019).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계속 막아 내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할 수 없었고, 송을 침략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고려와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으며,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신기,신보,항마-군)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그러나 여진족은 그 후에 더욱 세력을 키워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으며,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에 군신 관계

를 요구해 왔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나,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1126).

- 13세기 초,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변하였다. 몽골이 금을 공격하고 북중국을 점령하자, 고려와 몽골의 접촉도 시작되었다. 고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일삼던 몽골은,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였다(1231). 이로부터 고려는 40여 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벌였다. 무신 정권은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이 기간에 김윤후가 이끈 민병과 승군이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撒禮塔)의 군대를 물리치는 등 일반 민중의 항쟁이 이어졌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부곡 지역의 주민까지도 몽골에 대항하여 싸웠다. 고려 조정에서 몽골과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가 득세하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전쟁은 끝났다. 몽골은 고려를 완전 정복하겠다는 처음의 계획을 포기하고,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끈질긴 저항이 안겨 준 결과였다.

- ㉑ 몽골과의 항쟁
㉒ 거란과의 항쟁
㉕ 여진과의 항쟁

6. 다음은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되던 시기에 구국운동을 전개한 사회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단체명이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㉑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반일 규탄 시위를 전개하여 이에 성공하였다. 이후 협동회로 발전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 ㉒ 유신한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 문명국을 성립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㉕ 국권 회복을 목표로 교육과 식산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 윤효정, 장지연 등이 주도하였다.

- | ㉑ | ㉒ | ㉕ |
|---------|-------|-------|
| ① 보안회 | 신민회 | 대한자강회 |
| ② 헌정연구회 | 대한자강회 | 대한협회 |

- ③ 보안회 헌정연구회 신민회
④ 대한자강회 신민회 대한협회

정답: ①

* 여러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에 대하여

러.일 전쟁(1904~1905)과 을사 조약(1905.11)을 전후로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문화 언론.산업에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송수만, 심상진 등이 세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농광회사를 세우며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7).

입헌정치 체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 연구회(1905)를 계승하여 윤효정, 장지연 등이 세운 대한 자강회(1906~1907)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대한협회(1907~1910)는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단체로, 전국에 87개의 지회와 8,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며 확장해 나갔으나, 한 때 일제와 일진회와 제휴한 적도 있었다.

신민회(1907~1911)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주도하여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 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다. 신민회는 신(新)정신을 깨우친 국민들이 통일 연합하여 자유독립 국가를 설립하자는 취지 아래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며, 점차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의 건설 등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으나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7.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첫째는(㉠)이니 최근 3·1 운동에 일반 인사의 ‘평화 회의, 국제 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이천만 민중의 힘 있는 전진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뿐이었다. 둘째는(㉡)이니, 을사조약 당시에 여러 나라 공관에 빗발치듯하던 종이쪽지로 넘어가는 국권을 잡지 못하며, 정미년의 헤이그 특사도 독립 회복의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하매, 차차 전쟁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 각 지사들이 국내외 각지에

출몰하여 십여 년 안팎을 준비를 불렀지만, 그 소득이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단체뿐이었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 (㉣) 등의 미움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① ㉠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은 이승만이다.

② ㉡의 주장에 따라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③ ㉢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④ 이 글의 저자는 <한국독립운동지혈사>도 저술하였다.

정답: ①

* 조선 혁명 선언 (1923)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투쟁 목표를 문서로 만들어 달라는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1923년 1월에 발표하였다. 이 글의 앞에서는 일제와 타협하는 자치 운동과 문화 운동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외교론(이승만), 준비론(안창호) 등의 독립 운동 노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독립을 이루는 길은 오직 민중 직접 혁명밖에 없으며, 의열단의 폭력 투쟁은 민중을 일깨워 직접 혁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구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③ ㉢의 입장(외교론)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 인물은 이승만(1875~1965)이다. 외교론은 임시정부 초기의 주요 활동방향으로 파리 평화회의(1919), 워싱턴 군축회의(태평양회의, 1922) 등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으나 한국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윌슨은 열강간 국제협약과 국제연맹하의 ‘위임통치’라는 형식으로 식민지 약소민족의 문제를 점진적·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윌슨의 제자이자 이 노선을 취한 이승만은 결국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탄핵을 받게 되었다.

② ㉡의 주장(준비론)은 직접적인 폭력을 주장하는 의열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무정부주의는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 초기의 노선이었다.

④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저자는 박은식(1859 ~ 1925)이다. 신채호(1880 ~ 1936)는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이 유명하다.

8.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인종 때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 충선왕 때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 <동명왕편>은 신라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신라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제왕운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에서부터 서술하여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낸다.

㉤ 건국 초기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들

고려 시대에는 유학이 발달하고 유교적인 역사 서술 체계가 확립되어 많은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건국 초기부터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 버렸다. 이에,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을 현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덕종 때 완성하였다(황주량 편, 1013~1034). 그러나 고려 왕조 실록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다.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단군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져 온 역사계승 의식으로 추정)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서로는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삼국유

사, 제왕운기 등이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일연과 같은 시기에 이승휴가 강원도 삼척 두타산에서 집필하여 국왕께 찬진한 제왕운기(1287)는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시(上은 중국사, 下는 한국사를 각각 7언시, 5언시로 기술)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9. 다음 제시문의 수취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농업 발달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각 도의 수전(水田), 한전(旱田)의 소출 다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공법(貢法)에서의 수세액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척(田尺)으로 측량한 매 1결에 대하여, 상상(上上)의 수전에는 몇 석을 파종하고 한전에서는 무슨 곡종 몇 두를 파종하여, 상상년에는 수전은 몇석, 한전은 몇 두를수확하며, 하하년에는 수전은 몇석, 한전은 몇 석을 수확하는지, ……(중략)…… 각 관의 관둔 전에서도 과거 5년간의 파종 및 수확의 다소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 기>

㉠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일부 지역은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 시비법의 발달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 신숙은 ‘농가집성’을 펴내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였다.

㉣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정답: ①

* 조선 전기(15세기)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실시와 농업 상황

조선 전기의 전세는 과전법의 경우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1443)에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을 마련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 조선 전기에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모내기는 봄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 조선 전기에 시비법도 발달하여 밭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 17세기에 이르러 많은 농서가 편찬되고, 농업 기술도 크게 발달하였다. 17세기 중엽에 신숙은 농가집성(1655)을 펴내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앙법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 조선 후기에는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10. 밑줄 친 ‘이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들은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또는 의료직에 들어가고 또는 통역에 들어가 그 역할을 7~8대나 10여 대로 전하니 사람들이 서울 중촌의 오래된 집안이라고 불렀다. 문장과 대대로 쌓아 내려오는 미덕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유명한 재상, 지체 높고 변창한 집안 외에 이들보다 나은 자는 없었다. 비록 나라의 법전에 금지한바 없으나 자연히 명예롭고 좋은 관직으로의 진출은 막히거나 걸려 수백 년 원한이 쌓여 펴지 못한 한이 있고 이를 호소할 기약조차 없으니 이는 무슨 죄악이며 무슨 업보인가? -<상원과방>

㉠ 정조 때 이덕무, 박제가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되어 활동하였다.

㉡ 연합 상소 운동이 성공하여 명예롭고 좋은 관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조선 후기에는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문예 활동을 하였다.

㉤ 이들도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④

* 좁은 의미의 중인(기술직)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과 서얼)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의·역·율·산).

기술직인 좁은 의미의 중인들은 주관적으로는 사족(士族)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양반과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조선 후기에는 독특한 시문인 위향문학(委巷文學)을 바탕으로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서얼)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상소하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였다(통정 운동).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정유서얼허통절목, 1777), 더 나아가 1851(철종2년) 신해통공조치로 사관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얼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1851년 대대적인 연합 상소 운동을 벌였으나, 그 세력이 미미하여 실패하였다.

㉠ 신량역천·수공업자·상인·무당·승려·노비·서얼. 재가녀의 자식만 아니면 법제상 모두 문과 및 생진과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대부 계층에 의해 막히었다(四祖顯官 여부). 특히 향리는 양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부류로 보아 생진과

응시 시 향리 자제에 대한 군현 수령의 허가의 규제 사항을 정해놓았으나, 양인, 기술직 등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없었다.

11. 다음 보기와 관련하여 당시 사회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박종경은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관직을 홀로 거머쥐고, 맑고 화려한 관직들을 주무르기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된다고 하며, 일이 권한에 관계된 것이면 자기의 물건으로 여기고, 사방에 근거를 굳혀한 몸으로 모두 담당하려 합니까? 세간에 칭하는 바 문관의 권한, 무관의 권한, 인사의 권한, 비변사의 권한, 군사의 권한, 재정의 권한, 토지세의 권한, 주교세의 권한, 시장운영의 권한을 모두 손안에 잡아 득의양양하며 왼손에 칼자루를 오른손엔 저울대를 쥐어 거리낌이 없습니다. -<순조실록>

- ① 정감록 같은 비기와 무격신앙이나 미륵 신앙이 유행하였다.
- ② 벽서나 패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던 농민 항거는 점차 농민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 ③ 향촌에서는 수령의 역할이 배제되고 지방 사족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농민을 수탈하였다.
- ④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고, 유력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 하였다.

정답: ③

* 세도정치기의 사회상

정조의 탕평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정치로 발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3대 (순조, 헌종, 철종: 1800~1863)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김조순)나 반남 박씨(박종경), 풍양 조씨(조만영) 같은 소수의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세도정치기에는 왕권이 약화된 것은 물론 봉당정치와 관련된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며 그 기반이 축소되고, 권력 구조에서도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

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갖고 향리와 향임을 이용하여 조세를 건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삼정의 문란).

그리하여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 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이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여기에 무격신앙이나 미륵 신앙도 점차 확장되어 갔다.

한편, 농민들은 지배층의 압제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결하였다. 처음에는 벽서, 패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던 농민의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1811년 홍경래의 난이 효시이고, 1862년 임술 농민봉기에 극에 달함).

③ 향촌에서는 지방 사족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는 조선 중기(16세기)이다.

12.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

<보 기>

- ㉠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 ㉡ 장지연이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발표하였다.
- ㉢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 의병 부대(창의군)가 서울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④

*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1907.7) 이후의 역사적 사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1907.7)으로 인하여 정미의병(1907~1908)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단순한 의병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인영, 허위 등이 있다

㉠ 민씨 척족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저극 후원하던 민영환(1861~1905)은 을사조약(1905.11) 조약 체결 즈음 시종무관으로 좌천되어 막아내지 못하자 동포에게 전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1864~1921)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으로 논설을 실어 일본의 침략을 비난하였으며, 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 대신들을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 의병장으로 국내외에서 항일전을 전개하고 있던 안중근(1879~1910)은,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대표와 회담하기 위하여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그를 사살하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1909.10).

13. 다음 중 밑줄 친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경찰은 물론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 시위 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 ①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②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 ③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 ④ 무저항주의(비타협·비협조·비폭력)를 채택하였다.

정답: ④

* 3.1 운동

강점 이후 일제의 무단 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민족 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 선언에 고무되어 독립 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 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채택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과 학생, 종교인, 상인, 노동자가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도시로 확산되었고, 뒤이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급되었다.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차츰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식민통치 기관, 친일 지주 등을 습격하는 무력적인 저항 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또, 3·1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외 동포에 의해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3·1 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희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① 광주학생항일운동(1929.11)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② 6.10 만세운동(1926)은 사회주의자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의 학생들에 의해 계획되었으나, 사회주의자들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학생들 주도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다.

③ 국채보상운동(1907)은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14. 다음 보기를 시기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유자광 등 훈구들이 김종직이 지은 사초 <조의 제문>이 세조의 즉위를 비난한 것이라고 트집잡아 사림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를 가하였다.

㉡ 중종의 두 이복왕자를 둘러싼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된 것이었으나, 여기에 부수된 사림 세력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 임사홍의 밀고로 생모 윤씨의 폐비사사 사건을 알게 된 연산군은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였는데, 이때 사림 세력이 큰 화를 당했다.

㉣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사림 세력에 맞서 훈신들이 위훈삭제 사건을 계기로 조광조 등을 축출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 4대 사화

성종 때부터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이어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무오사화(1498,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 문제), 갑자사화(1504, 폐비 윤씨 사사 문제)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김굉필의 문인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소윤, 명종의 외척), 윤임(대윤, 인종의 인척) 등 외척간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윤임 일파와 함께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15. 고려와 조선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려 목종 때 개정전시과는 논공행상적 토지였다.

② 조선 시대 건축은 고려 시대보다 더욱더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③ 고려시대 공예품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조화시켰다.

④ 고려 말에 등장한 분청사기는 조선 시대 궁궐에서 쓰였던 자기였다.

정답: ④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사회와 문화

- 고려 태조 때에 개국 공신과 군인들의 논공행상 일환으로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940).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8, 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1076, 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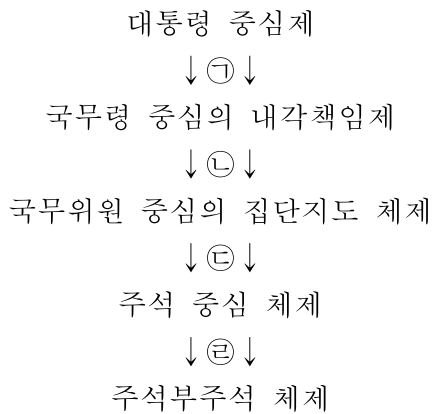
- 조선 시대의 건축은 웅장하고 화려한 고려의 건축과는 달리 유교 통치 이념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규모가 작고 검소하면서도 위엄을 갖추었다. 또 어느 건물이나 건물 자체의 균형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현존하는 것으로는 서울의 숭례문, 창경궁의 홍화문, 창덕궁의 돈화문, 개성의 남대문, 해인사의 경관고 등을 들 수 있다.

- 고려의 공예 예술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고려청자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고려 사람들의 예술

적 재능과 창의력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즉, 예술성이 매우 높지만 귀족적이며 실용적인 면이 약하였다.

- 조선 시대의 공예는 상류 계층의 사치품이 아니라, 의식주의 필수품이나 사대부의 문방구 등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발달을 보여 예술성과 실용성을 조화시켰다. 따라서, 공예품의 재료도 금, 은, 구슬과 같은 보석류를 별로 쓰지 않고, 나무, 대, 흙, 왕골 등과 같은 흔한 재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고려 말에 나타난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조선 전기 궁중이나 관청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대신에 백자나 분청사기를 널리 사용하였다. 분청사기와 옹기그릇은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에서 만들어져 관수용이나 민간용으로 보급되었다. 한편, 조선 시대의 장롱, 문갑 같은 목공예 분야에서도 실용성과 예술성을 잘 조화시켰다.

16.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제 변천 과정이다. ㉠ ~ ㉤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민립대학설립기성회가 결성되었다.
 ② ㉡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③ ㉢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④ ㉣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답: ③

* 임정의 체제 변천 각 시기의 역사적 사실

<임시정부 헌법 변천>

- 임시헌장(1919.4: 의정원 규정과 공화정 → 이후

헌법의 기본 틀)

- 통합 임정 1차 개헌(1919.9: 대통령제)
- 2차 개헌(1925: 국무령 중심 내각책임제)
- 3차 개헌(1927: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 4차 개헌(1940: 주식 중심제)
- 5차 개헌(1944: 주식·부주식 중심제)

① 이상재, 한규설 등에 의해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어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 아래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추진되었다.

② 나운규가 1926년 민족의 비애를 담은 영화 ‘아리랑’을 발표하였다.

③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가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1926).

④ 일제는 한글 연구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장지영, 최현배, 이회승 등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조선어 학회 사건, 1942).

17. 조선 시대 여러 국가 기관과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예조 - 남궁(南宮)·춘관(春官)이라고도 하며 의례, 교육, 외교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 사헌부 - 지관(地官)·지부(地部)라고도 하며 재무, 조세, 호구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 승정원 - 백부(栢府)·상대(霜臺)·오대(烏臺)라는 별칭이 있었으며 감찰행정을 맡았다.
 ㉣ 홍문관 -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았다.
 ㉤ 교서관 - 임금의 교지(敎旨)·사명(辭命)을 작성하였으며, 문장이 뛰어난 관리들을 모아 놓았으므로 ‘한원(翰苑)’이라고도 하였다.
 ㉥ 춘추관 -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일지인 「등록」을 모아 해마다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고, 실록이 편찬되면 이를 보관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 조선 시대 여러 국가 기관

의정부 - 영의정(정1품): 백관과 서무를 총괄 (黃閣: 황각)

6조 - 판서(정2품): 행정 집행 기관

이조(天官): 내무, 문관인사

호조(地官): 재무, 조세, 호구

예조(春官): 의례, 교육, 외교 (남궁:南宮)

병조(夏官): 군사, 무관인사

형조(秋官): 형률

공조(冬官): 토목, 비변사 제외

홍문관 - 대제학(정2품): 왕의 자문역, 궁중 도서관리, 경연, 문한 담당 (玉堂:옥당)

사헌부 - 대사헌(종2품): 감찰기관 (霜臺:상대, 烏臺:오대, 柏府:백부)

사간원 - 대사간(정3품): 간쟁기관 (薇院:미원)

의금부 - 판사(종1품): 특별 사법기관 (金吾:금오)

승정원 - 도승지(정3품): 왕명출납과 비서기능 (銀臺:은대, 喉院:후원)

한성부 - 판윤(정2품):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

춘추관 - 제조(종1~종2품): 실록 담당. 각사 등록(업무일지)을 모아 해마다 <時政記> 편찬

성균관 - 지사(정2품): 최고 교육 기관 (泮館:반관)

승문원 - 도제조(정3품): 외교 문서 작성 (槐院:괴원)

예문관 - 대제학(정2품): 국왕의 교서 작성, 역사 기록 (翰苑:한원)

교서관 - 제조(종1~종2품): 서적 간행 (芸閣:운각)

*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승문원은 4관(四館)이라 불린다.

18. 다음 보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시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경간-7]

<보 기>

지금 보내온 국서(國書)를 살펴보니 부왕(父王)의 도를 갑자기 바꾸어 날짜 아래에 관품(官品)을 쓰지 않았고, 글 끝에 천손(天孫)이라는 참람된 칭호를 쓰니 법도에 어긋납니다. 왕의 본래의 뜻이 어찌 이러하겠습니까.…… 고씨의 시대에 병난이 그치지 않아 조정의 위엄을 빌려 저들이 형제를 칭하였습니다. 지금 대씨는 일없이 고의로 망령되어 사위와 장인을 칭하였으니 법례를 잃은 것입니다.

①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칭해졌다.

②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 중흥을 꾀하였다.

③ 5경 15부 62주의 행정 제도를 완비하였다.

④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산동의 등주를 공격하

였다.

정답: ②

* 일본을 사위로 칭한 발해 문왕

발해 문왕(737~793) 때에는 대내적으로 관료조직이 확충되고 왕권이 강화되자, 이를 바탕으로 황제를 뜻하는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불교의 진륜성왕의 이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고려국왕을 표방하고 일본을 舅甥(구생: 사위 장인)관계라 하였고 스스로 천손(天孫)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영토도 크게 확장하여 북으로는 불열말갈과 철리말갈을 포섭하였고, 또한 남쪽으로 용흥강 주변까지 발해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정했다가 다시 동경 용원부로 옮겼다.

① 무왕(719~737)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등주 지역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③, ④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19. 다음은 백제와 관련된 기록이다. 발생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5-기7-8]

㉠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하였다.

㉢ 내신좌평을 두어 왕명출납을, 내두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내법좌평은 예법과 의식을 …… (중

략)…… 병관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㉔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성주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항복하였다.

-
- ① ㉑-㉒-㉓-㉔
② ㉒-㉓-㉔-㉑
③ ㉒-㉑-㉔-㉓
④ ㉓-㉒-㉔-㉑

정답: ③

* 백제 왕들의 연대기

㉑ 백제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346~375) 때에 이르러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사유)을 전사시키며 황해도 일대를 장악하였다(371).

㉒ 백제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538).

㉓ 백제 고이왕(234~286)은 6좌평 제도와 더불어 관등제를 마련하였다(260).

㉔ 백제 의자왕(641~660)은 장군 윤충을 통하여 신라 대야성을 획득(642)하였으나, 이는 후일 김춘추의 나.당동맹 체결에 자극을 주었다(김춘추의 딸과 사위인 성주 품석을 죽임).

20. 다음 보기 중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개혁 방안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 ㉑ 문벌 타파와 인재등용
㉒ 조세에 대한 제도개선
㉓ 과부개가 허용
㉔ 왕권 제한 및 관리 부정 타파

-
- ① ㉑, ㉒ ② ㉑, ㉓ ③ ㉒, ㉔ ④ ㉒, ㉔

정답: ①

*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의 공통적 개혁 방안

- 갑신정변(1884) 개혁정강 14조 중 2조의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

리를 임명한다”와, 동학농민운동(1894)의 폐정개혁 12조 중 9조의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갑오개혁(1894) 홍범 14조 중 14조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 갑신정변 개혁정강 14조 중 3조의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와, 동학농민운동(1894)의 폐정개혁 12조 중 8조의 “무명의 잡세는 모두 폐지한다”는, 갑오개혁(1894) 홍범 14조 중 6조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㉒ ‘과부개가 허용’은 갑신정변 개혁정강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에 나타나, 1차 갑오개혁에서 실현되었다.

㉔ ‘왕권 제한’에 대해서는 갑신정변 개혁정강의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를 통해 나타나지만,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갑오개혁 홍범 14조에서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관리 부정 타파’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에 모두 명문화 되어 있으나, 갑오개혁에서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